

장성군, 아열대작물 신성장동력으로

레드향·패션프루트 등 7종 60개 농가 16ha 재배 활발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설립

장성군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설립에 맞춰 각종 아열대작물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고 있다.

장성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작물은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패션프루트, 애플망고, 구아바, 체리 등 총 7종이다. 16ha 규모로 60개 농가가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장성군과 아열대작물 인연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 기존 농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아열대작물 재배법을 연구하기 위해 선진지 방문과 교육을 추진했다. 장흥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안도 등지를 찾아 패션프루트와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지를 살펴보고 노하우를 익혔다.

이듬해인 2017년 아열대작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체리, 구아바를 시작으로 애플망고와 만감류 등이 장성에서 재배됐다. 2019년 남면을 중심으로 재배 종이던 레드향이 첫 수확의 기쁨을 얻었다. 레드향에는 '비타민P'가 다량 함유되어 건강에 좋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최근 고소득 작물로 정착해 명절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2020년에는 국비 350억원 규모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다.

장성군은 사과와 포도의 남방한계선과 단감의 북방한계선이 공존해 아열대성 기후변화 연구에



장성군 삼계면에서 농업인 김상일씨가 재배중인 패션프루트를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최적지다.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적고, 중부지방과 전남을 잇는 관문으로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춰 인근 농업 관련 연구기관과 원활한 협업 및 연구가 가능하다.

미래 농업의 전초기지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장성에 완공되면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재배 기술 보급도 이뤄져 아열대작물 재배 분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장성미래농업대학에 전국 최초 '아열대학과'를 신설해 지역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아열대작물 집중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해 5농가 0.6ha 규모로 패션프루트 단지를 조성했다. 최근 0.5ha 규모가 추가 공모에 선정돼 올해 총 1.1ha 규모로 패션프루트를 재배할 계획이다.

신소득 체리단지(2.5ha·9농가·도비 3억4000만원)도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는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데몬'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언정 장성군 원예소득과장은 "2016년부터 이어온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 노력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와 잇따른 공모 선정, 신소득 작물의 안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아열대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 '정남진역' 진입도로 공사 지지부진

감리비·지역민원 놓고 장흥군-철도공단 이견

보성-목포 임성간 철도(전철) 구간 장흥 정남진역 진입도로 공사(사진)가 추진기관간 의견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정남진역 진입도로 공사는 철도공단이 시행 추진하기로 지난 2020년 3월 장흥군과 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했으나 간접비(감리비) 부담과 지역민원 우려 등의 이유로 기관간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남진역 진입로는 총 66억원(철도공단 34억원, 군비 32억원)을 들여 장흥군민회관 앞에서 정남진역을 연결하는 연장 809m 4차선(폭 21m) 도로다.

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철도공단측이 장흥군에 세부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23억원)과 감리비(15억원)를 요청하고 있지만 군은 민원해소와 감리비 절감 등을 내세워 군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위·수탁 협약 재협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토지보상절차를 감안 철도공단이 사업을 맡게되면 공사지연 등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장흥군 건설도시과장은 "철도공단측과 정남진역 진입도로 공사를 이달내로 직접 시행을 위한 업무 재협의를 끝내고 늦어도 다음달에 착공, 12월말 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남진역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국도2호선 평화나들목(IC) 개설공사는 지난해 말 이미 완료됐으나 정남진역 진입로 공사지연으로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백신·바이오 등 국책시설 상반기 착공

412억 투입 세대연대복합센터도

화순군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백신·바이오 분야 대형 국책사업과 생활 SOC 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활기를 찾고 있다.

화순군은 현재까지 총사업비 333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20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 면역세포치료 산업화기술플랫폼 등 백신·바이오 분야 대형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이미 시작됐거나 상반기 중 착공된다.

특히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은 480억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가

동된다.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사업비 263억원을 들여 올해 공사를 마무리한다.

청소년·여성·고령 3대 친화 도시 조성도 도시재생, 생활 SOC 확충에 필요한 시설 공사도 서두르고 있다.

412억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마련하는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는 상반기 착공한다.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대연대복합센터에는 마을공동체혁신센터, 여성 플라자(광장),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13개 시설이 들어선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생태공원,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난다

파충류·증강현실·숲체험 등 365일 관광 프로그램 운영

함평자연생태공원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자연생태공원이 1년 365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국내 최대 양서파충류 전문 전시관으로 한국관, 사막관, 열대관 등 총 6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국내종과 함께 킹코브라, 사하라살모사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외래종까지 104종 464여 마리의 양서파충류를 볼 수 있다. 양, 사슴, 토끼 등 동물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나비·곤충 표본 전시관인 자연생태과학관은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3월 체험형 과학관으로 탈바꿈해 새롭게 선보인다.

단순한 전시 위주에서 벗어나 증강현실(AR),



함평자연생태공원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전경. <함평군 제공>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을 활용한 '신비한 숲속 놀이터', '호기심연구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계획이다.

자연생태공원은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의 보전기관 14호로 지정돼 있어 풍란, 나도풍란, 지네발란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도 볼 수 있다.

울창한 산림과 공원을 휘감는 대동제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자연생태공원은 이를 활용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숲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풀꽃 관찰, 열매 구슬치기 등 유아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놀이들로 구성돼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임산부 220명 대상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연 48만원 상당 식자재 비용 지원

나주시가 지역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임산부와 미래세대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기준 임산부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때 자부담 20%(9만6000원)를 제외한 총 비용의 80%를 연간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1억560만원을 확보해 임산부 22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7-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한 임산부 300여명 중 기존 지역사 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중복 수혜 등 검증 절차와 신청순으로 대상자 220명을 최종확정했다.

시는 올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확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 회원가입 후 원하는 품목을 월 4회 한도 내 주문하면 된다.

단 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 미가입하거나 60일 이내 주문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